



동방 경제 포럼 소식

Yu. 우샤코프는 러시아가 응답으로서 일본에 49사항으로 된 협력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의 논의에 대한 선행결과가 동방경제포럼 중에 별도로 정리될 것을 밝혔다. 《프라임》

사할린주개발공사는 80억루블짜리 대농장건축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. 협정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서명될 예정이다. 단지는 현대적인 우유가공기술을 포함하며 기업체는 치즈, 우유 및 발효유제품 등 19개의 품목을 생산할 것이다. 《타스 통신》

동방경제포럼 범위 안에서 피치 세션(참가자들이 수행하는 간략한 프레젠테이션)에서는 1.5조루블어치 큰 투자프로젝트 30개 이상이 소개될 것이다. 세션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에 의하여 선정되었다. 프레젠테이션 존의 사업방식은 러시아 및 외국투자자, 회사대표, 국가권력기관과 언론기관 대표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발기자들이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며 투자자들이 책임자들에게서 미래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사항을 직접 알 수 있게 해 준다.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프로젝트를 소개할 가능성이 이에 대한 주목을 끌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도 지역전체에도 추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확신한다. 《타스 통신》

극동 뉴스

'테흐노-니켈-다리니보스톡' 유한책임회사는 '블라디보스토크' 선도개발구역의 레지던트회사로서 현무암보온재공장을 가동시켰다. 이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보온재 공장 2개가 건축될 것이다. 투자의 총 금액은 28억루블이며 27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. 《아무르프레스》